통화권이탈

(막7:31-37)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통화권이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통화권이탈'이라는 말은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의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던 말입니다.
핸드폰이 생기면서 덕을 많이 보게 되지요.
가장 드라마틱 한 경우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산 속에서 조난당했을 때 옛날 같으면 알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는 정말 대단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이 갖고 있는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반드시 통화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마다 제일 우선적인 과제가 뭐냐 하면 통화권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통화가 가능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이동통신사는 어디에서도 통화가 잘 되더라' 이런 인식이 박혀야 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통화권을 벗어나게 되면 전혀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권의 경계선 상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말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뭐? 뭐라고?', 시내에서도 지하실 같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통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화권이탈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동통신사가 그렇게 애를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늘 하나님과 통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도 통화권이탈 문제가 이야기 된다는 겁니다.
통화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권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통화가 두절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통화권이고 어디서부터가 통화권을 이탈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애써서 오랜 시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권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이얼만 누르면 곧바로 통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화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장애를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가락을 그 귀에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 바르십니다.
위생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치유의 제스처로 사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치유이야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마가의 의도가 마태와는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으셨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발랐다, 이런 얘기를 마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마가복음 7장의 맥락의 흐름을 우리가 복습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장애가 나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 맨 앞에 보면 결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떡을 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면서 더러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더러움과 깨끗함을 가지고 이야기할진대, 음식의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짐이 결정된다.'

그러면 왜 더러워지느냐?
'마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았을 때, 마치 우리의 위가 음식을 담게 되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뒤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게 될 때, 그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것이고 그렇게 담게 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속에 담았다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똥이다.
마음이 싸는 똥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왜 생기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건 명예건 직장문제,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한 비전의 문제이던 간에 그것을 관심 갖고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될 때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똥을 싸게 돼있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마가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에게 운명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과 같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여호와하나님이 소개될 때는 유대인의 전매특허처럼 소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그 하나님여호와에게로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보다 그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담고 그것들을 인정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서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운명 속에 갇혀서 제한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운명적으로 지어진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듯이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육체로 가능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삶, 주어져 있는 얼굴로, 태어나게 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형제와 연을 맺고 살아가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 심지어는 내 몸보다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하나님과 명백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통화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를 하는데 통화권의 경계에 있습니다, 들렸다 말았다 들렸다 말았다 그래요.

그럴 때, '뭐? 뭐라구?'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말이 막히는 겁니다.
통화권은 아니지만 외국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외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프랑스 사람과 대면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못 들으면 말도 안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세상의 삶이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삶의 어느 문제나 어느 대상을 마음에 담지 말고 그 모든 것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담았을 때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들리면서 내 입이 트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준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대해서도 사업을 대할 때도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만일 내가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마음에 담기 전에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내가 사업을 볼 때에 내가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통화권 안으로 들어갔을 때처럼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상태는 왜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20세기의 물리학을 지배하는 것이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이 양

자역학의 창시자가 독일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말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학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물리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물리학이라는 게 자연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방식의 노출된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자연 그 자체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껏 관찰을 해봐야 어떤 식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자연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질문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방식에 따라서 답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교인과, 즉 유무상통하는 교인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업가가 같이 사업에 망했다고 합시다.
이때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마음상태의 사람이 사업이 망한 현실을 보는 것과 지금 우리와 동시대인으로서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 사업이 망한 사실을 볼 때, 벌써 마음속에 질문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사업하다 망했을 때는 망한 사업을 바라볼 때 이 사람 마음속의 질문방식은, '사람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천국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일이다, 천국이 나의 제1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 잘될 때도 돈을 벌었는데 내가 쓸 생각 안 하고 없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천국을 현실로 느끼지 못할 때 망하게 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다는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이 망한 것을 볼 때 이건 망한 것도 뭣도 아닌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획된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 사업이

망했으면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사업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를 관찰하기 이전에 돈이 많은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돈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질문하는 방식은,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답을 얻고 깨닫고 판단하게 하는가 하면 '나는 망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돈을 품은 상태에서는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공부를 안 하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직장이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찰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저 아이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대학을 못 들어가고 재수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당장 돈 버는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을 먼저 담을 수 있는 길로 인도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권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삶을 시작하고 삶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물건들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살아요, 뉴스 보면 뉴스 보고 당황하고, 회사 들어가면 동료들의 이야기 직장상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고, 동네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당황하고, 학부형 모임에 가면 거기서 말하는 것 듣고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이 세상 것들을 담아가지고 생기는 똥과 같은 생각들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저렇게 돼야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그건 사실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모십니다.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삶을 시작하기 이전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될 때에, 삶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해요.
부부끼리도 이혼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마음속에 넣고는 내가 생각을 해버리고 내 생각을 아내에게 주장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통과시킬 때 내 입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사업을 보고 자식을 보고 세상일 돌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그 생각과 판단이 전달되고 하나님과 통화권 안에서 완전히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해주고 있

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싸는 똥으로서의 생각, 이 세상 것을 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더러워지는 생각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히 들어오면 말도 명확해지는 거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하나님과의 통화권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에는 오직 이 세상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모셔 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내 마음에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내 입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내뱉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